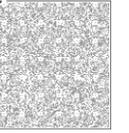


# 국민 권익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테마기획  
부패 방지

국민결합·정부민원 110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국민신문고 1600-8172  
ACRC홈페이지 [www.acrc.go.kr](http://www.acrc.go.kr)



## 권익은 '소통'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상생활 고충과 수많은 민원들,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생각들,  
국민권익위원회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 국민 권익

**6 SUMMER**  
ACRC NEWSLETTER 2017. Vol.53

### ACRC 풀어보기

- 이슈 돋보기 04**  
제15차 AOA 총회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 ACRC Talk 08**  
청렴홍보대사 장혜진·박상영의  
청렴 이야기
- 헤드라인 뉴스 12**  
2017년 상반기 국민권익위 주요 이슈
- 국민권익위원회 부서 탐방 14**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해법이 보입니다”
- 케이스 스터디 18**
  - 1) 현장조정 사례
  - 2) 행정심판 재결례
- ACRC Toon 22**  
2016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 With ACRC 26**  
말레이시아 반부패 아카데미 탐방



### 연간 기획 ; 청렴韓 대한민국

- 28 청렴韓 세상**  
과태료 부과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양벌규정’
- 30 청렴韓 우리**  
청탁금지법 시행 후,  
취재가 더 당당해졌다
- 32 청렴韓 변화**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

### 테마 풀어보기 ; 부패방지

- 34 테마 리포트**  
부패방지 제도와 개선 현황
- 38 테마 인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40 테마 스토리**  
세계로 뻗어 나가는  
반부패 정책

### 세상 풀어보기

- 44 트렌드로 세상 보기**  
나홀로족 급증,  
1코노미 시대와 타임커머스
- 46 건강 100세**  
대한민국 4대 중증질환 예방  
\_심장질환
- 48 청렴 인물 답사기**  
전남 고흥에서 경남 통영까지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 따라가기
- 52 독자 마당**  
독자 퀴즈와 후기

발행일 2017년 6월 12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성영훈  
편집인 박형석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전화 044-200-7081 팩스 044-200-7911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웨스트크(주) 032-423-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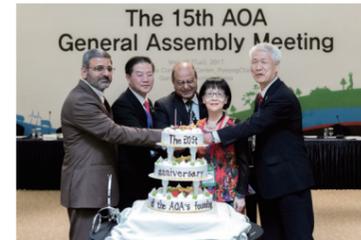
# 아시아 옴부즈만의 빛나는 현재와 미래

글+사진. 편집실

지난 5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아시아 옴부즈만 화합과 논의의 장'이 열렸다. 바로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가 개최된 것이다. 올해로 출범 10년 차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옴부즈만 기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생생한 현장을 돌아보자.



18개국 22개의 AOA 회원기관 및 IOI 아시아지역 회원기관,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등 5개국 초청연사 등 총 80여 명의 회원기관 대표단과 국내 옴부즈만, 학계 등 총 400여 명이 참가했다.



## 아시아 옴부즈만, 세계 옴부즈만으로

아시아옴부즈만협회(Asian Ombudsman Association, AOA)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총 4일간 열렸으며, 첫째 날인 16일에는 제20차 AOA 이사회와 제15차 총회, 그리고 세계 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아시아지역회의가 진행되었다. 옴부즈만이란 조정자, 중재자, 감시자의 뜻을 가진 스웨덴어다. 스웨덴이 1809년 의회 대리인으로서 법관과 행정부 공무원들의 법률 준수를 감시하는 옴부즈만을 설치한 것이 오늘날 옴부즈만의 시초가 되었다. 현대적 의미에서 옴부즈만은 독립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와 불합리한 행정시스템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많은 국가가 부패방지시스템의 주요 요소로 활용 중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옴부즈만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지역 옴부즈만인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하 사조위)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총회 및 국제 컨퍼런스에는 18개국 22개의 AOA 회원기관 및 IOI 아시아지역 회원기관,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등 5개국 초청연사 등 총 80여 명의 회원기관 대표단과 국내 옴부즈만, 학계 등 총 400여 명이 참가했다.



## 옴부즈만은 국민의 대변인이자 후원자

17일 오전,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에는 IOI, 호주·뉴질랜드 옴부즈만 협회(ANZOA) 등 국제 옴부즈만 전문가들이 초청연사로 나서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제언을 나눴다. 또한 18개\* 아시아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각국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이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컨퍼런스 개막식에는 이진복 국회 정부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최순순 강원도지사, 여형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 심재국 평창군수 등 국내 인사가 참여해 축하를 전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컨퍼런스 개최사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출범 이후 9년 간 한국의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부패방지, 민원처리, 제도개선, 소통채널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옴부즈만은 불편·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권

익 보호의 보루다.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과 중립성 등의 제도적 특징과 더불어 국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옴부즈만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철영 강원도 사조위 위원장은 “설립 5년차를 맞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아시아 옴부즈만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국가와 지역 옴부즈만이 공동 주최하는 역대 최초의 대회로 AOA 회원기관의 역량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는 물론이고 아시아에 특수 옴부즈만과 지역 옴부즈만의 활동을 공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진복 국회 정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고충처리나 행정처분의 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시민 간 적극적인 소통의 가교가 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컨퍼런스 개최사하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옴부즈만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권익 보호의 보루다.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과 중립성 등의 제도적 특징과 더불어 국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옴부즈만 정신이 필요하다.”

### 동계올림픽의 고장 평창, 옴부즈만 뿌리내려

평창에서 열린 이번 총회와 컨퍼런스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AOA 역사상 국가 옴부즈만(국민권익위)과 지역 옴부즈만(사조위)이 함께 주관해 여는 최초의 행사다. 특히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사조위(2012년 9월 설립)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총 4,178건의 민원을 처리해 도민권익 증진에 기여해왔으며, 지난 2015년 11월에는 국제적인 연대와 경험 공유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AOA 정회원에 가입하였다. 한편 지난 2016년 11월에는 IOI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명실상부한 지역 옴부즈만으로서 선도적 지위 확보와 함께 세계 선진 옴부즈만의 노하우를 통해 보다 질 높은 대도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불과 몇 달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개막을 축하하는 내빈들



컨퍼런스 제1세션에서 기초연설  
중인 귄터 크로이터(Günter Kräuter)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사무총장

앞두고 개최하는 국제회의인 만큼 강원도를 찾는 국내의 참가자들에게 동계 올림픽을 보다 잘 알리고 관심을 불러 모으고자 홍보관 운영과 함께 스키점프대, 올림픽파크 등의 올림픽 시설을 둘러보는 견학 기회 또한 제공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컨퍼런스 개막식 환영사에서 “국민 권익보호에 노력해 온 국내외 옴부즈만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이번 평창 대회를 통해 아시아의 옴부즈만 제도가 보다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평창은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주무대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하는 현재와 미래

옴부즈만 컨퍼런스는 총 네 개의 세션으로 나뉘져 3일간 진행되었으며, 18일 진행된 제2세션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각 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시행 중인 국민신문고의 민원 평가 체계를 소개했다. 국민신문고는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고 튀니지에 성공적으로 수출되는 등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으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온라인 공개 토론 등에 참여가 가능하다. 컨퍼런스 이후에는 지방·청렴 옴부즈만 운영사례 등을 논의하는 국내 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과 학술 대회가 열려 그 어느 대회보다 다채롭고 내실 있는 행사였다는 평가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이해와 공감에 바탕을 둔 옴부즈만 정신을 통해 부패 해결을 위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옴부즈만의 감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제1세션	정치·행정·사회변화에 따른 옴부즈만 설립과 발전
제2세션	옴부즈만의 구조적 문제 및 실효성 확보 한계의 극복방안
제3세션	진정한 권익 수호자를 위한 시너지 창출방안
제4세션	성년 AOA, 진단과 발전방안



한국문화 체험 중인 다이앤 웰본(Diane Welborn)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제1부회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견학 및 기념촬영

리우올림픽 양궁 2관왕  
청렴 홍보대사 장혜진

# Chang Hye jin



“제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늘 청렴하게 행동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 양심에 따른 행동, 청렴사회로의 지름길

인터뷰+사진. 편집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홍보대사를 맡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운동선수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특별히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영광이고, 양궁선수로  
서 항상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작년 9월에 시행되  
었는데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  
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운동선수다 보니 아직 실질적인 체감은 하  
지 못하지만, 가까운 지인에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회식 자리가 줄어들어 가족들과 더 많  
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  
습니다. 아직 시행 초반이라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더욱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한 초석  
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혜진 선수  
께서 생각하시는 ‘청렴’의 또 다른 의미가 있  
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도 양궁선수로서 개인의 점수나 기록을 조  
작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는 상황  
에서, 제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늘 청렴하게  
행동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어떤 기관이  
되었으면 하나요?

국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해결 창구로서 완벽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궁 국가대표 선발 시스템이 공정하기로  
유명합니다. 청렴으로 이뤄낸 지난 리우 올  
림픽 양궁 전 종목 석권이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양궁 선발전도 처음부터 공정한 시스템을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록경기로 이루  
어지는 국내 대회에서, 선수들이 서로 점수  
를 조금씩 올려주는 부정 사례가 있었습니  
다. 이런 일이 몇 번 적발되고 난 뒤에 선수  
협 측에서 심판을 강화하고 더욱 철저한 기  
록 관리를 진행하면서 지금의 시스템이 정  
착된 것입니다. 현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  
시다시피 공정한 시스템을 갖춘 선발전을  
치루는 선수로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  
습니다. 그 자부심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  
드는 원동력이 되고 자신감이 됩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지난 리우 올림픽에서 전 종목  
석권이라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께서 양궁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공정한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양궁이라는 운동과 청렴의 이미지가 잘 맞아  
서 제가 청렴 홍보대사가 되었는데, 그 기대  
에 맞게 항상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올 10월 진행  
되는 세계선수권을 준비 중이며 내년에 있을  
아시안 게임, 3년 후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  
등 저의 자리에서 언제나 열심히 노력하는  
국가대표! 청렴 홍보대사로 남겠습니다. 많  
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정정당당, 할 수 있다!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외침

인터뷰+사진. 편집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홍보대사를 맡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대사라는 자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동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렴 홍보대사가 된 것이 당연히 영광스럽고 좋지만, 그만큼의 책임감이 따르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어떤 기관이 되었으면 하나요?

국민 누구나 차별 없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노력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탁금지법의 시행 목적이기도 한 접대문화 근절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있습니다. 교수님이나 공무원분들과 식사 자리가 생겼을 때 흔히 말하는 더치페이로 인해 전보다 훨씬 편안한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박상영 선수께서 생각하시는 '청렴'의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까요?

'정정당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다 보니까 팀의 결과로 승부가 결정되는데, 사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노력의 결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정정당당한 사회가 바로 청렴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권익> 여름 호 주제가 '부패 방지'입니다. 혹시 운동계의 '부정부패' 사례나 '청렴' 사례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들은 것은 없고, 저는 그런 부정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펜싱 선발전 방식도 더욱 공정한 시스템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시합의 결과로 국가대표를 선발하던 방식에서 현재는 세 번의 시합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적의 역전승 "할 수 있다!"로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 박상영 선수께서 국민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회가 청년들에게, 특히나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는 초년생들이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접어두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해나간다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난 리우 올림픽 때처럼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는 제 스스로와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저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법률이나 정책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정적인 현장을 본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말리겠습니다. 펜싱선수로서는 다가오는 7월에 열리는 독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서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갖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아시안 게임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처럼 단계적으로 제가 해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박 상 영 선 수 의 청 령 이 야 기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청렴 홍보대사 박상영

# Park Sang Young



“할 수 있다!”는 제 스스로와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 ACRC

## HEADLINE NEWS



### SUMMER

ACRC NEWSLETTER 2017. Vol.53

한 눈에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뉴스

### 반부패 정책, 아프리카 튀니지에 전수 ❷



2

우리나라 반부패·청렴 정책의 우수성이 아프리카 대륙까지 전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6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튀니지 정부 방문단에게 반부패 정책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단은 샤키 타빕(Chawki Tabib)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로트피 나블리(Lotfi Nabl) 국회 운영위원회 의원 등 7명이다. 튀니지 부패방지위원회(INLUCC)는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재스민 혁명이 일어난 후 2011년 11월에 설립된 반부패 전담기구로 반부패 정책 수립, 공공 및 민간 부문 부패 수사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방문에 함께 한 샤키 타빕 위원장은 201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튀니지 국민4차대화기구의 창립 멤버다. 국민권익위와 튀니지 부패방지위원회는 2012년 12월 한국-튀니지 정부간 정보화협력 MOU 체결을 통해 진행된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작년 2월에는 MOU를 연장하는 등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다.

###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❶

- 외국 CEO “청탁금지법으로 청렴문화 확산 기대”
- 국민권익위 출범 10년, 주한 외국기업인의 의견 청취·해결 노력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1일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반부패 정책 소개 및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후지요시 유우코우 서울재팬클럽 이사장(한국미쓰비시상사 대표이사

사장), 크레이그 파쉬 주한호주상공회의소 이사(우드사이드 한국지사장) 및 주한 미국·독일·일본·유럽·영국 상공회의소 소장 등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 12명이 자리를 빛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 기업인들은 한국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의 반부패 총괄기관이자 대표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주한 외국기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1

### 국도 1호선 논산시 부적면 구간 현장조정 실시 ❶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4리 마을 주민들은 대전에 갈 때 주로 국도 1호선을 이용했다. 그러나 지난 1983년 논산-대전 구간이 4차로로 확장되면서 국도 1호선에서 마을로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약 1.4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지난 3월 17일 충남 논산시청에서 주민들과 논산시 부시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논산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합의된 중재안에 따라 논산시장은 길 확장 공사 및 교통안전시설을, 논산경찰서장은 좌회전 차로 설치,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은 좌회전 차선 및 보도 등을 설치기로 했다.



3

### “부패문화 청산하고, 청렴문화 확산하자” ❶

지난 4월 3일 여의도 국민일보 12층에서 ‘2017 미래감사포럼’이 열렸다. ‘부패문화 청산과 선진청렴문화 확산’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은 쿠키뉴스가 주최, 사단법인 미래경제포럼이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조직위원장을 맡은 이규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의 개회사로 열린 1부 우수감사사례 공모전 시상식에는 총 6개 기관 감사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기념촬영 후 이어진 2부에서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선진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감사인의 자세’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사회의 부패현황을 살펴본 후 주요국가의 반부패 법률을 비교해 설명하며 특히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반부패 3법’으로 청렴인프라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3부 패널 세션에는 100분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전체토론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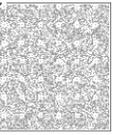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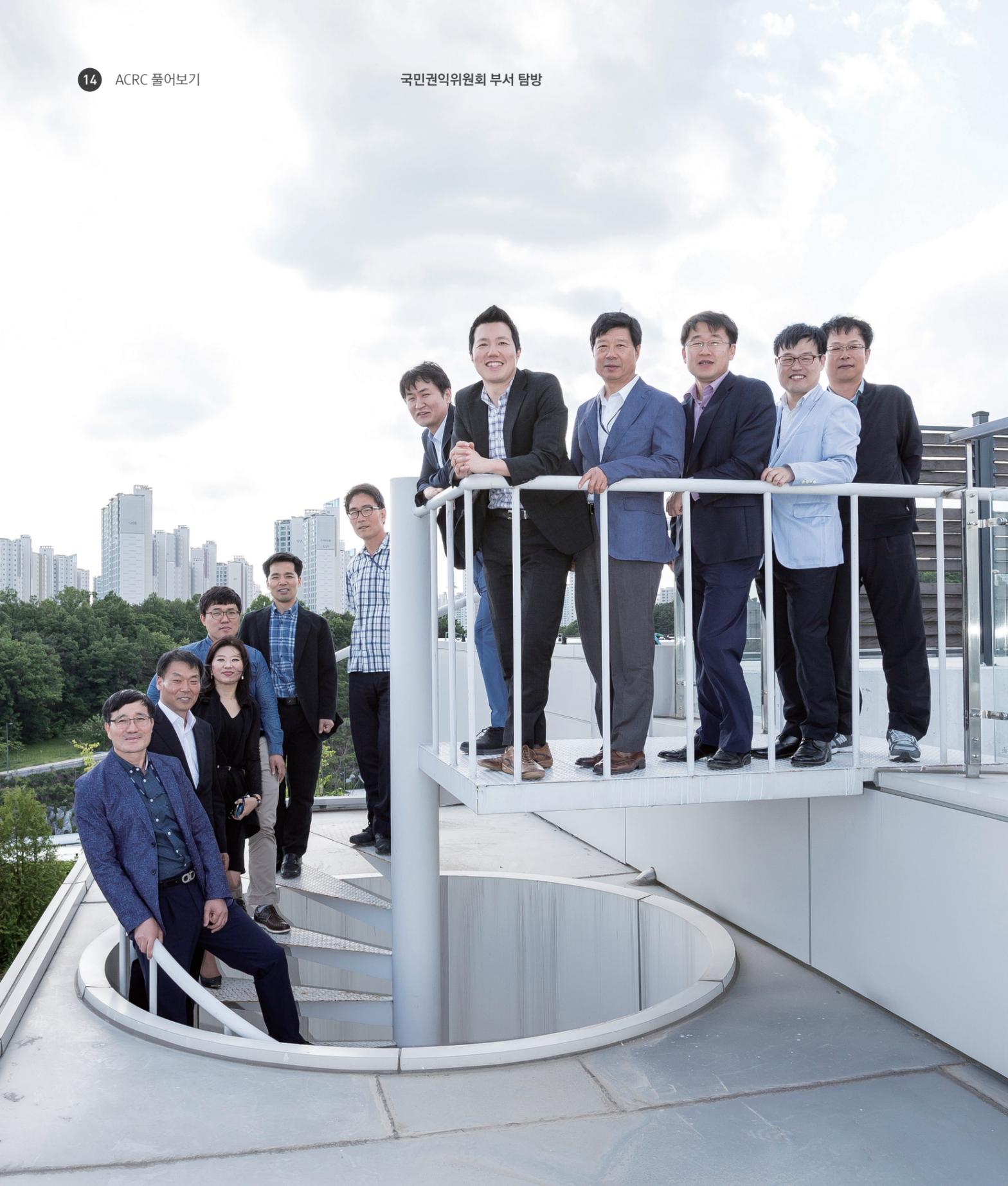
4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역 현장조사 진행 ❶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상민 중앙행정심위원장을 주재로 지난 4월 27, 28일 이틀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1995년부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온 양양군은 201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2015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허가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달 3일 중앙행정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인 만큼 현장을 방문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구술심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심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5



고충처리국 내에서도 유독 업무 영역이 방대하기로 손꼽히는 부서가 산업농림환경민원과다. 산업통상자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환경 등 하나같이 실생활에 근접한 영역의 어려움을 살피는 것이 이들의 일이다. 대립하는 이해관계와 갈등의 한복판에서 합리적 조율을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해법이 보입니다

###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법보다 국민의 삶이 먼저라는 생각이 기본

잇따르는 전화벨과 쌓이는 민원서류들로 이들의 하루는 오늘도 분주하다. 공사장의 소음이나 생활악취로 인한 불편, 농업 기반시설 설치 요구, 공장 증축허가와 관련된 민원 등에 이르기까지 이들에 당도하는 민원의 내용은 실로 방대하다.

“모든 민원들마다 절박하지 않은 게 없죠. 법과 제도의 기준으로만 보면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더라도 최대한 해결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석원 과장은 민원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민원인들의 힘든 마음에 최대한 귀 기울이며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미션이라 소개한다. 민원인 대부분이 정말 ‘해볼 거 다 해보고’ 그 래도 어려워서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루 평균 접수되는 민원이 30여 건. 이 가운데는 민원으로 성립될 수 없는 사안도 적지 않다. 이미 사법부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례에 해당하는 민원은 지침에 따른 답변과 함께 되돌려 줘야 한다. 또한 1차 민원기관인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할 민원은 다시 합리적 루트를 안내해준다. 그렇게 해서 최종 인용되는 민원은 25% 정도다. 이들 가운데 고충의 정도나 유형에 따

라 바로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단순민원과 조사관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고충민원, 제도 개선과 맞물린 민원 등으로 분류하여 매뉴얼에 따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기본적인 민원의 양이 많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판단을 요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연관된 법률만도 100여 가지가 넘을 정도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14명의 구성원 모두 해당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들이지요. 그러나 법의 적용 자체보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명분과 논리, 가치를 종합적으로 통찰하여 해결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등조정자의 역할이란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을 두루 만족시킬 솔로몬의 지혜를 찾는 일이다. 그러나 100% 만족스러운 해법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최대한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최대치의 타협점을 찾고 이를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관들 모두 설득과 소통의 달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개선방향도 나오는 법.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업농림환경민원과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기업 옴부즈만 활동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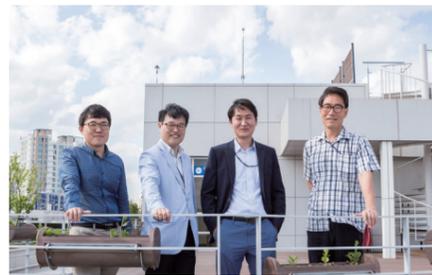
이들이 펼치는 활동 가운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현장 간담회가 있다. 옴부즈만으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14년부터 매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을 찾아가 현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듣고 대책을 찾아보자는 거죠. 이 자리에는 15개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석하여 사안별로 디테일하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즉문즉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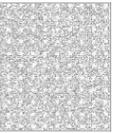
지역·테마별로 기업현장을 찾아가 고충을 청취하고 도움을 주니 참가하는 기업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 문제를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지원 방식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는 일이기도 하다. 권석원 과장은 4년째 이어진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관련 실태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1



2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엄지 척!’ 이다

“우리나라에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벤처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이미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몰라서 활용이 안 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것도 의외로 많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제도들도 많거든요.”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개선방향도 나오는 법.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다. 그것이 기업의 고충을 근저에서부터 해소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권익을 확대해 가는 길이라 믿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벤처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등이 건강한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노력이다.

- 1 정동률 방혜신 권석원 광명안
- 2 윤세웅 김재학 이종민 김춘호
- 3 남기현 윤석준 김덕선 정민철



3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찾아 설득하는 일이란 말처럼 쉽지가 않다. 하물며 법과 제도의 틀을 넘어 제기되는 문제를 풀려는 높은 권위나 지식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난제다.

“끝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도, 정책적 이슈가 될 만한 부담스런 문제도 우리 조사관들은 피하지 않고 무조건 나섭니다. 당장은 법과 제도의 한계에 막히고 첨예한 이해 대립 속에서 거의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라도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길이 보이거든요. 그걸 찾는 게 우리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도상의 불합리한 지점을 해소하는 갈등민원 해결 사례는 너무나 많다. 최근 선박조선기자재를 납품하던 중소기업의 농지보전부담금 문제로 인한 민원이나, 제천 왕암동 지정폐기물 매립장 갈등 민원, 하남수산물유통시설 이전 갈등 민원 등이 대표적 성과 사례들이다. 도저히 좁혀질 것 같지 않던 갈등이 풀리고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졌을 때, 최고의 희열을 느낀다.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감사의 손 편지는 이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보람이다. 대부분 평범한 소시민들이고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때로는 교도소 수감자로부터 온 편지도 있다. 그들 역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는 동등하고, 그들의 민원 또한 같은 기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새삼 확인해 주는 사례다.

“지난 10년 간 명백히 위법부당한 민원사례들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기관에게 강력한 시정권고를 할 만한 사례가 줄었다는 것이죠. 대신 위법은 아니지만 의견표명을 통해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토록 권해야 하는 조정기능은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살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 그 이상의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조율하는 노력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 쉽지 않은 사명에 대하여 이들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다.

산업농림환경민원과는 국민권익위의 ‘엄지 척!’이다.

스스로의 사명감에 대한 자부심의 엄지 척! 전국민이 엄지 척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제주 서귀포 안덕면  
군도~농로 연결 도로  
신설 현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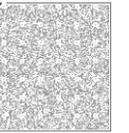
## 누가, — 왜?

+ 각종 채소와 감귤 생산지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일대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30여만 평 규모 농경지 주변에 길이 5.7km 군도(郡道) 37호선이 개설되어 4.77km 기존 농로와 연결된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군도 37호선과 농로를 잇는 530m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은 과도한 물류비를 지불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서귀포시의 입장은 단호했다. 해당 구간 지반이 22% 정도로 급경사인 데다, 높이까지 해 도로 개설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민들은 결국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길을 물었다.



정리. 편집실

불과 500미터 앞에 길이 있는데 닿을 길은 없다. 하는 수 없이 휘돌아가는 길을 택한다. 달릴수록 가까워져야 하는 목적지가 하염없이 멀어진다. 애가 탄다. 길 위에 뿌려지는 돈과 시간을 생각하면 속도 까맣게 탄다. 허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주민의 뜻을 살핀 국민권익위원회, 그 뜻에 공감한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찰떡 호흡으로 제주 서귀포에 새 길이 나게 생겼다.



## 언제, — 어디서?



+ 길을 찾아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10일,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서귀포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무엇을, — 어떻게?

+ 서귀포시는 급경사인 해당 구간 대신 인근 감산리 1089번지 북측으로 우회하는 현황도로(지적도에 표기되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포장해 기존 농로와 연결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해당 구간을 군도 확포장 사업에 반영하는 데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로 개설에 필요한 설계를 추진하고, 설계비 등은 서귀포시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주민들 역시 농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 사유지가 추가 편입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정을 통해 관계 기관이 협력해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고, 영농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관계 기관은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속·공정·권익·구제 행정심판



누가, — **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등급 판정 처분 취소 재결

+ 1990년 5월 2일 밤, 서울 종로 인근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선량한 청년이 범죄자의 칼에 머리와 복부를 크게 다쳤다. 상처는 27년여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청년의 몸과 가슴에 남았다. 문제는 당시 청년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근무하던 의경 신분이었고, 유흥주점 영업 단속을 나갔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흉터는 깊었다. 그 길이가 무려 19cm~22cm에 달해 머리카락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청년, 아니 그는 2015년 8월 19일 우여곡절 끝에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국가유공자 요건 상이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 피해정도를 살펴 등급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보훈병원 전문의와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등의 '6급' 해당 의견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7급'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가를 위해 몸 바쳐 일하는 것이 명예이자 사명인 군경(軍警). 하지만 그것도 본인의 안전을 먼저 살핀 이후부터다. 만약 군경 신분으로 심신에 피해를 입었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한 처리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의 판단은 상식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 땅의 모든 용사들이 국가를 믿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테니.



언제, — **어디서?**

+ 국민권익위원회는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의 흉터 크기가 10cm 이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첨단 치료 과정을 거치기 위해 받았던 성형외과 검진에서조차 '성형 미용을 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영구히 남을 것'이라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7급' 판정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체등급 결정을 재심의하라고 보훈처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보훈처는 성형수술을 통해 그의 흉터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7급'으로 재처분을 하였다. 이에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자신이 부여받은 상이 등급에 이의를 제기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 권고를 의결한다.”

무엇을, — **어떻게?**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간에 청구인의 민간병원 진단 기록, 보훈처의 신체 검사 기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의 흉터는 10cm 이상에 해당하고 현재로서는 성형수술을 통한 개선도 쉽지 않아 '6급'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청구인은 이로써 국가유공자 6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행정심판 등 다양한 권익구제 수단을 통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례와 같이 처분 기관이 시정권고를 불수용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재결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 위 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다양한 궁금 증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center.simpan.go.kr>)를 참조하십시오.

2016년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웹툰 일반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 청렴 清맑고 廉깨끗한 당신의 이야기

본 작품은 사연(수기) 공직부문 장려상 수상작을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 부문별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integritycontents.kr) '수상작갤러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살기 힘들다. 처세를 익혀야지, 처세를. 소주 맛이 유난히 쓰던 날



생각바뀌면 연락하라.

나는 첫 직장에서 해고됐다.

## 최고의 처세술

내 꿈은 원래 법조인으로



양심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입학과 동시에 사법 고시에 뛰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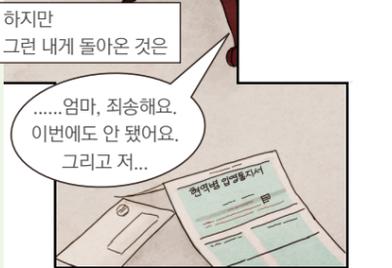
고시생에게 시간은 곧 금이었다. 공부할 짬을 벌고자 입대를 미뤘다. 취업 스펙을 포기하고



사람과의 만남도 즐겁다.



그야말로 고시에 올인한 삶...



하지만 그런 내게 돌아온 것은

.....엄마, 죄송해요. 이번에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저...

세상에서 열외되었다는 통지표 뿐이었다.



전역하고 보니 나이는 어느덧 스물 여덟.

하루하루가 좌절의 연속이었다.

아, 너 고시 접는다며? 응, 아무래도 가망없어 보여서. 구안을 보고 연락 드렸는데요. 28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영단에 없습니다. 생활비 좀 부족하다. 넉넉하게 못줘서 미안해. 어머니... 맞그제 또 면접 보고 왔어. 별 기대도 안 된다, 이젠. 사람 이미 구했어. 아 아 세상 살기 힘들다. 아 아 세 살기 힘들다. 거둬되는 도전과 실패에 지쳐갈 때쯤 힘내라.

에, 제가 최선의 입사지만. 네? 채용을 알리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 서른에 얻은 첫 직장이었다.



작은 회사지만 연봉은 보장해요.

이곳은 건설 컨설팅 업체다.

건설업을 등록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법대생이 들어오니 든든하네요.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잘 부탁 드립니다.

이 회사는 그 등록 절차를 대행해, 기준 미달인 영세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예금 거래 실적을 증명해 주는 일을 한다. 원하던 법조계는 아니지만, 날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래 실적을 있는 것처럼 조작하러니, 그건 명백한 법률 위반 아닙니까?

그만 일로 사장을 오라가라 하더니 보기보다 당당한 친구구만.

아니, 곧 생길 실적, 땀겨서 미리 배 주는 게 무슨 큰 죄라고 이러나?

오히려 정부는 우리에게 고마워 해야 해요. 가난한 이들에게 무담보로 돈 빌려줘, 사업 스타트 도와줘, 이 얼마나 좋은 회사냐.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올바른 일 같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건설법이 자본 기준을 엄격하게 잡은 건, 부실업체가 저지를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서 아닙니까. 주먹구구로 범람을 통과한대도 의뢰처가 우리 회사의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자잘한 문제는 접어두게. 자잘하지 않습니다! 자금란이 임금 미지급이나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아, 거기부터 그쪽 책임이지! 우리가 일일이 밥까지 떠먹여 줘야 해?



..... 양심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죄송하지만, 전 이 일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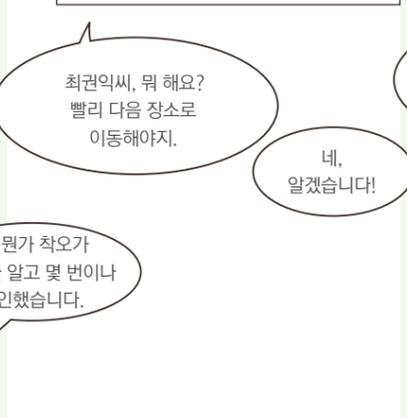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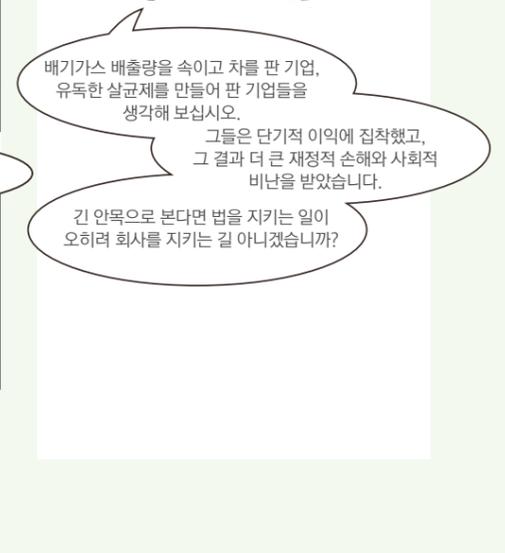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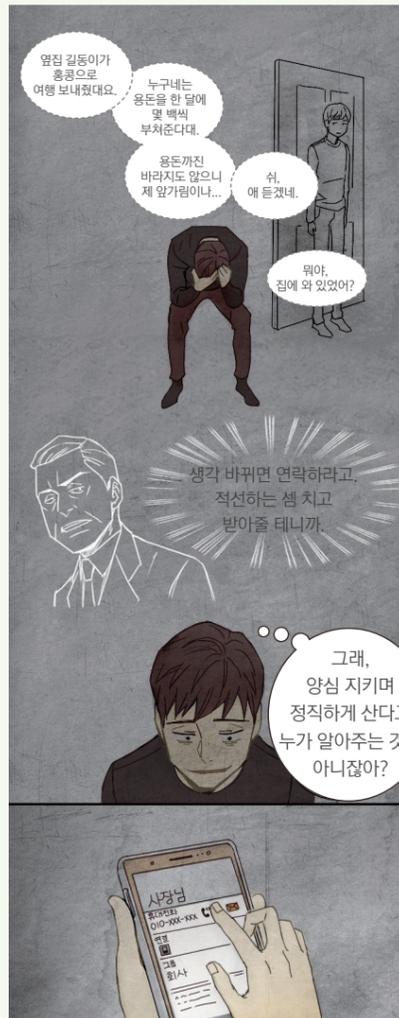
그럼 자네 해고일세.

실업자로서의 일상은 예상보다 혹독했다.

고시를 상당히 오래 준비했는데, 본인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2개월 뿐이네요. 네, 실은 이차처치해서-

도? 사람이 실면서 정당한 말을 구할 줄도 알아야지. 그래도 어떻게 거짓말을 해? 솔직하면 누가 밥 먹여 준다던? 선배, 혹시 사람 구하는 데 없을까요? 음, 없진 않는데 아마 너랑 조건이 안 맞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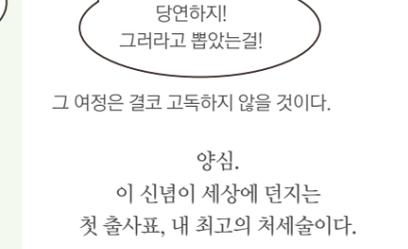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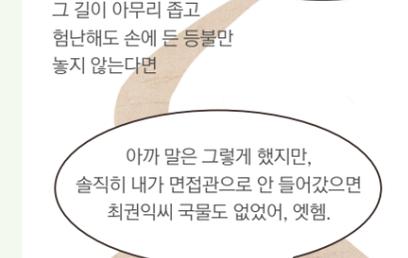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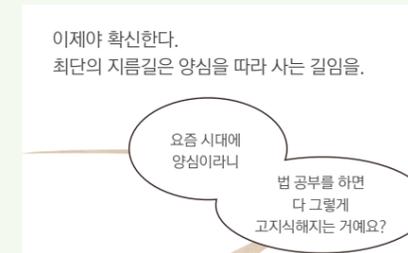
8년을 매달렸는데 못 붙고 회사에서도 잘렸다. 어떡해, 너무 불쌍하다-



### 최고의 처세술

김은아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신 원작자 분과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위원회 분들께 감사합니다. 손가락 하나 없고 생색내는 기분이라 겸연쩍지만, 주신 상은 기쁘게 받겠습니다. 요즘처럼 소란한 시국일수록 조용히 숨어있는 양심을 발견하고 독려하는 작업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농단 사태로 맘이 어두울 때, 거리로 뛰어나온 촛불을 보며 희망을 되새긴 건 저뿐만은 아니겠지요. 이 만화 역시 청렴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2003년 12월, 압둘라 아마드 바다위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반부패 국제회의에서 반부패 아카데미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2005년 12월 1일, 총리의 공언대로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 소속 말레이시아 반부패 아카데미가 탄생하기에 이른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6년 기준 84개 프로그램 과정에 자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1,898명이 반부패 교육에 참여했다.

# 반부패 교육의 글로벌 플랫폼

말레이시아 반부패 아카데미  
Malaysia Anti-Corruption Academy(MACA)

정리. 편집실



### 배움을 통한 청렴 확산 노력

말레이시아 반부패 아카데미(이하 MACA)는 부패예방부, 수사학부, 정보학부, 법무기소학부 4개 학부와 국제연구센터, 기본교육센터, 기업청렴개발센터, 연구개발센터, 행정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국립대학교와 협동으로 부패 연구 석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MACA의 목표는 반부패 교육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부패 수사와 정보, 기소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정규 교육 과정과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폭넓다.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직원 및 국내 공직자뿐만 아니라,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말레이시아 청렴연구소(Malaysia Institute of Integrity), 기업위원회, 증권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공 및 민간 기업 대상 청렴교육인증과정 개발·운영, 인터폴과의 교류 연수 프로그램 운영도 MACA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다.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는 앞으로도 반부패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확산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연수생들의 반부패 역량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말레이시아 반부패 아카데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prm.gov.my/index.php/en/macac)를 참조하세요.

## <말레이시아 반부패 아카데미>

Malaysia Anti-Corruption Academy(MACA)

### 국제연구센터(International Studies Centre)

- 해외 반부패 기관 대상 반부패 관련 강좌·세미나·워크샵 계획 및 운영
- 국제 반부패 기구 협동 반부패 관련 세미나·워크샵 계획 및 운영

### 기본교육센터(Basic Training Centre)

- MACC 직원 대상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 MACC 신입 직원 대상 기본교육 운영

### 기업청렴개발센터(Corporate Integrity Development Centre)

- 공공·민간 부문 대상 윤리교육 인증 과정 개발
- 민간부문 대상 윤리경영 전략 수립 지원

### 연구개발센터(Planning, Research and Corporate Centre)

- 강좌·세미나·워크샵에 관한 조사 및 평가
- 분기별, 연간 활동 보고서 작성 및 연간 교육 프로그램 기획
- 교육수요 분석 및 신규 강좌 개발

### 수사학부(School of Investigation)

- 조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국내외 관계 교육기관 공동 수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정보학부(School of Intelligence)

- 정보 및 기술보조장치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지방정부·민간기업·외국기관 협동 정보 관련 강좌 및 세미나 실시

### 법무기소학부(School of Law and Prosecution)

- 법무 및 기소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반부패위원회 등 사정기관 직원 대상 법률 강좌 운영
- 지방 고등교육기관 및 법무부 협동 법무 및 기소 관련 강좌 운영

### 부패예방관리학부

#### (School of Corrup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 부패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지방 고등교육기관과 협동 강좌 운영

### 행정국(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Department)

- 행정관리과(Service Management Unit)
  - \* 행정·재정·자원 관리, 기관 운영에 관한 장기 계획 수립 및 이행
- 자료실(Library Unit)
  - \* 자료실 운영, 자료 수집 및 열람 업무
- 정보기술과(Information Technology Unit)
  - \* 보안, 전산, 인터넷 관련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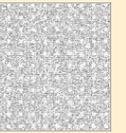
## 과태료 부과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양벌규정'

청렴한 사회로의 첫 출발점인 청탁금지법. 법은 과연 청탁을 받은 사람만 처벌하는 걸까? 최근 청탁금지법 상 양벌규정과 관련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내용과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공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 A씨는 공연이 예정돼 있는 공연기획사 대표 B씨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다. 이 사실을 파악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다. 식사를 접대받은 A씨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식사를 접대한 B씨와 B씨가 속한 공연기획사 법인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1항 제3호(금품 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 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또는 제23조 제5항 제3호(금품 등의 제공자가 공

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 상,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이하 '사업주'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양벌규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품 등을 제공한 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24조 소정의 양벌규정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금품 등을 수수한 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법률의 해석 상 국가기관 또는 기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양벌규정의 면책사유

청탁금지법은 사업주가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 등(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이는 형벌의 책임주의에 따라 사업주가 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기 위함이다.

현재까지 청탁금지법 상 사업주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례는 없으나, 다른 법령의 해석상 사업주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탁금지법 해석 또한 이와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또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약속 및 정책, 윤리규정을 마련한 후, 이를 종업원이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습득시키고 있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 사안의 검토

위 사안에서 공직자 A씨의 구체적인 업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소속 공공기관이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B씨가 소속된 공연기획사는 양벌규정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나 법인 내지 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각 사업주의 청탁금지법 위반 방지를 위한 관심은, 사업주의 양벌규정 적용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공직자 및 공적 업무 종사자를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정착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공직자 및 공적 업무 종사자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글. 김수민  
(법률사무소 소나무 변호사)



# 부정청탁, 저리 비켜!

##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적 청탁 및 금품수수에 제동

정리.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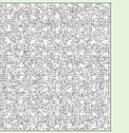
청렴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 청렴을 향한 움직임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민권익위가 2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3월 10일 기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으로 집계되었다.

###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현황 (2016.9.28.~2017.3.10.)



### 사례 돋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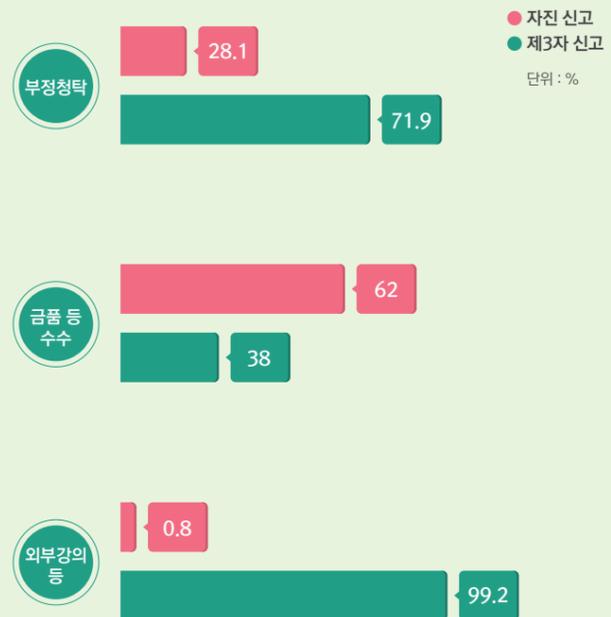
#### 수사의뢰 사례

-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대학교수가 외국에 거주하는 학생이 강의에 불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인정함
  -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진료순서 대기 없이 진료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및 MRI 촬영을 수행함
-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 등 제공 및 수수
  - 언론사 관계자가 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후원을 빙자하여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 학교 운동부 감독이 코치의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운동부 학부모들에게 8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함

####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사례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 소방서장이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소방시설 완공 승인 편의 및 위법사항 묵인을 하급자에게 지시함
  - 물품 납품 회사 직원이 납품 검사 관련 심의위원에게 부정으로 청탁함
- 직무관련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제공 및 수수
  - 부서장인 공직자가 부서원들이 각출하여 마련한 금 열쇠 등 100만 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수수함
  - 대학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수수함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금품 등 수수 신고는 공직자 등의 자진 신고가 62%(255건)으로 제3자 신고 보다 많았으며, 현금 2천만 원부터 양주·상품권·음료수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반환함을 통해 공직 사회의 높은 자율 준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제3자 신고가 71.9%(97건),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가 28.1%(38건)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의 등 위반행위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으로 적었으며 지연 또는 미신고가 1,750건으로 99.2%를 차지했다.



신고 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통보한 사례는 총 57건으로 나타났다.

###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현황 (16.9.28.~17.3.10.)



구분	부정 청탁	금품 등 수수	계
수사의뢰	3	16	19건
과태료 부과요청	2	36	38건
계	5건	52건	총 57건

###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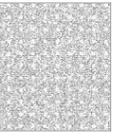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총 78,439회로, 기관 당 평균 3.3회다. 이는 청탁금지법 상 의무화 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가 준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행정기관(헌법·중앙·지방)의 경우 평균 21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유관단체, 학교 및 학교법인 보다 많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질의를 총 13,891건 접수하여 52.1%(7,233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하고, 3월 28일 기준으로 110 콜센터를 통해 총 36,629건의 전화상담을 처리했다. 질의답변 및 설명, 교육 자료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 청탁금지법 게시판을 통해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다. 더욱 더 청렴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 국민권익위가 있기에 가능하다.

# 청렴韓 세상 만들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한 기능과 역할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시간.

그 두 번째 주제는 '부패방지'다. 이는 곧 대한민국 사회에 기분 좋은 청렴의 바람을 몰고 온 청탁금지법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밖에도 밝고 맑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부패방지 기능을 함께 알아보자.



## '반부패 3법'으로 청렴 인프라 구축

어느 노랫말처럼, '습관'이 참 무섭다.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는 오랫동안 뿌리박힌 연고주의와 온정주의가 팽배해 왔다. '정(情)'이 넘치는 사회는 참 좋지만, 그 정이 부정(不正)이 되면 곤란하다. 국민권익위가 고질적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의식 개혁의 획기적 계기 마련을 위해 '청탁금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이유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으로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분명 청렴한 사회로 가는 전환점이 되기에는 충분했고,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역시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 경쟁 관련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 법은, 2016년 1월 개정되어 공익 신고 대상 법률 확대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도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막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정환수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부정환수법'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으로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공공재정 부정사용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국회에 법률 제정(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렇듯 국민권익위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반부패 3법'을 통해 서서히 우리 사회를 푸른색으로 물들이는 중이다.

##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강화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일은 나쁘다. 하물며 그 돈이 국민의 혈세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국민권익위는 공공 재정 부정 수급 신고 처리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통합 기구인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13년 설치된 '정부 합동 복지 부정신고센터'를 2015년 1월부터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복지와 비복지 분야를 망라한 전 부처 통합 부정 수급 신고센터의 기능을 수행한다. 출범 이후 성과는 훌륭하다. 신고 접수된 2,875건 중 2,788건을 처리 완료했고, 이중 674건을 조사·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했다. 이에 따른 환수 추정액만도 984억 원, 조사기관에 이첩·송부된 674건에 대한 금액 619억 원까지 합치면 무려 1,500여 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킨 셈이다.

### 복지·보조금 신고 상담 접수 및 처리 건수

연도	신고상담	신고접수	처리완료				이월
			계	이첩	송부	종결	
합계	10,548	2,875	2,788	493	181	2,114	87
2013	416	145	101	1	21	79	44
2014	2,925	802	766	102	78	585	80
2015	3,602	896	901	197	60	644	75
2016	3,605	1,032	1,020	192	22	806	87

※ 분야별로 보건 복지(1,106건, 38.5%), 노동(247건, 8.6%), 산업 자원(134건, 4.7%), 농림(128건, 4.4%), 건설 교통(77건, 2.7%) 등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

해마다 한 번씩 공공기관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시기가 있다. 바로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공표되는 날이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 청렴도 개선을 위한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제사회로부터 부패 예방을 위한 신뢰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2012년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정책 전수를 진행 중이다.

법령에 내재된 부패 유발  
요인 발굴·개선

제·개정 법령 부패 영향 평가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의뢰한 법령 등에 대해 국민권의 위에서 직접 입법 단계부터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도 빼놓을 수 없는데, 민생과 복지, 공산품 안전 관리, 연구 개발, 교육, 지방 행정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법령에 내재된 부패 유발 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위탁·대행 사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공공 행정 사업의 재정 누수 방지 및 행정의 책임성 제고, 비리기업 제재,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등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된 부패 유발의 싹을 잘라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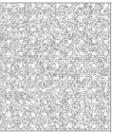
제·개정 법령 부패 영향 평가

(단위: 건/%)

구 분	접수 법령	평가 법령				
		계	개선 법령	개선 의견	원안 법령	
2008~2016	건수	14,073	14,067	1,683	3,805	12,384
	(비율)	(100)	(100)	(12)	-	(88)

공익 신고 빈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 신고가 반복되는 취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범정부적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있다. 이는 영세 상인과 서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규제 개선 실적은 총 11건이다.



공익 신고 빈발 분야 주요 규제 개선 현황

-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임의 확장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 등 개선(2014년 8월)**
  -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의무 1차 위반 시 처분을 '영업정지 7일 또는 과징금 부과'에서 '시정명령'으로 변경(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닭·오리 식육 미포장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 등 개선 (2014년 10월)**
  - 전통시장에서 닭·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위생 요건을 갖추면 포장 의무 대상에서 제외(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 전기공사 미 표시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개선 (2015년 9월)**
  - 위반 횟수, 위반 기간, 시정 여부 등과 무관히 200만 원으로 획일화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으로 세분화(산자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 고소(高所)작업차 인증 절차 개선(2016년 10월)**
  - 고소작업차 안전 인증을 받은 후 자동차 자기인증 총 중량 측정을 통과하기 위하여 작업대 등 주요 부품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자기인증을 먼저 실시하고 주요 부분에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는 개선안 시행
- 온라인 쇼핑물 안전 관리 강화(2017년 예정)**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을 취급하는 통신 판매업자에게 식품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 신설(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제연시설 시험자 자격기준 신설(2017년 예정)**
  - 화재 시 유독가스와 연기를 제거하는 제연시설에 대해 감리업자의 책임 하에 전문업자가 참여하여 성능 시험을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전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정)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강화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투명해서 행정이 투명하고, 사람이 깨끗해야 사회가 깨끗할 수 있다. 이를 잘 알기에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자리한 곳이 바로 2012년 10월 설립된 공직자 청렴 교육 전문기관인 '청렴연수원'이다. 이곳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되는데, 고위 공직자부터 하위 직급까지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기관 대상 청렴 집합교육 수요인원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여기에, 추세에 발맞춘 사이버 교육도 진행된다. '청탁금지법의 이해' 등 시의성 있는 교과목 신설 및 서버 수용 능력 확충은 청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청렴 집합교육 수요인원



사이버 청렴교육 수요인원



교육에 재미를 더하면 효율은 극대화된다. 독창적 청렴 교육 프로그램 '청렴 콘서트'가 이를 증명했다. 실제로 청렴 콘서트 도입 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부패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노력 덕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사례로 보는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이 사회 전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걸 바로 잡는 것 또한 국민의 권리이자 역할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이러한 공익침해행위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개인의 바른 선택,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국번 없이 110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 안전분야: 교량 부실 시공
  -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 소비자 이익분야: 유사 석유 판매
  - 공정경쟁분야: LPG 담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279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 ※의 별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권익위나 조사기관·수사기관, 국회의 원 및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바로 공익신고다.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할 경우,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를 이첩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조사 및 수사 결과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분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나청령 씨는 A가 수 년 전부터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 난간대를 KCS 마크를 붙여 인증 제품으로 위변조하여 홍보, 영업, 제작, 유통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A는 마치 자신이 납품한 안전 난간대가 인증을 받은 것처럼 다른 제품의 안전 인증서를 제시하여 발주처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수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지금도 수개의 현장에 미인증 안전 난간대가 KCS 인증 제품으로 둔갑한 채 설치되어 있다.

※ 이 이야기는 실제 공익신고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 나청령

“A의 행위는 고공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제품을 개발하고 인증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인 타 업체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A가 더 이상 불량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공익증진 차원에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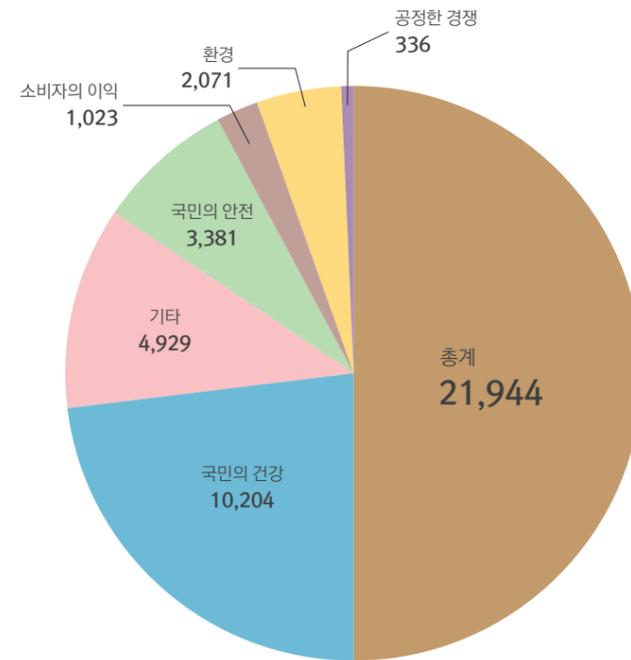
나청령 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A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조사기관인 고용노동부로 이첩하였다. 조사기관은 A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더 이상 미인증 안전 난간대를 제작·판매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미 시중에 유통한 미인증 안전 난간대 1,600여 개를 회수 및 파기하여 근로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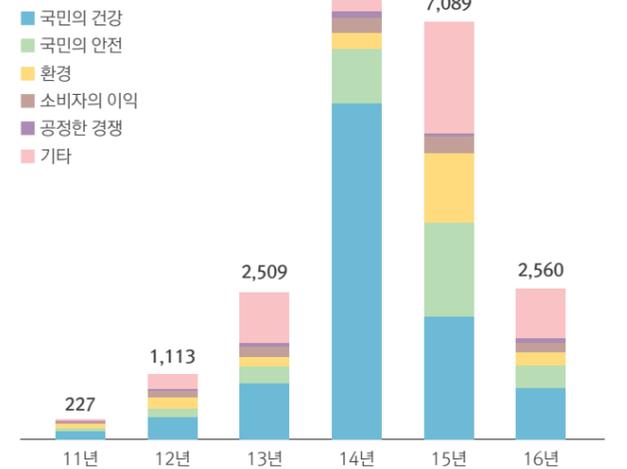
“나청령 씨의 공익신고를 통해 수년간 부당이익을 챙긴 불법 유통 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익증진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 공익신고 접수현황(법시행~2016년 12월 31일)



### 공익신고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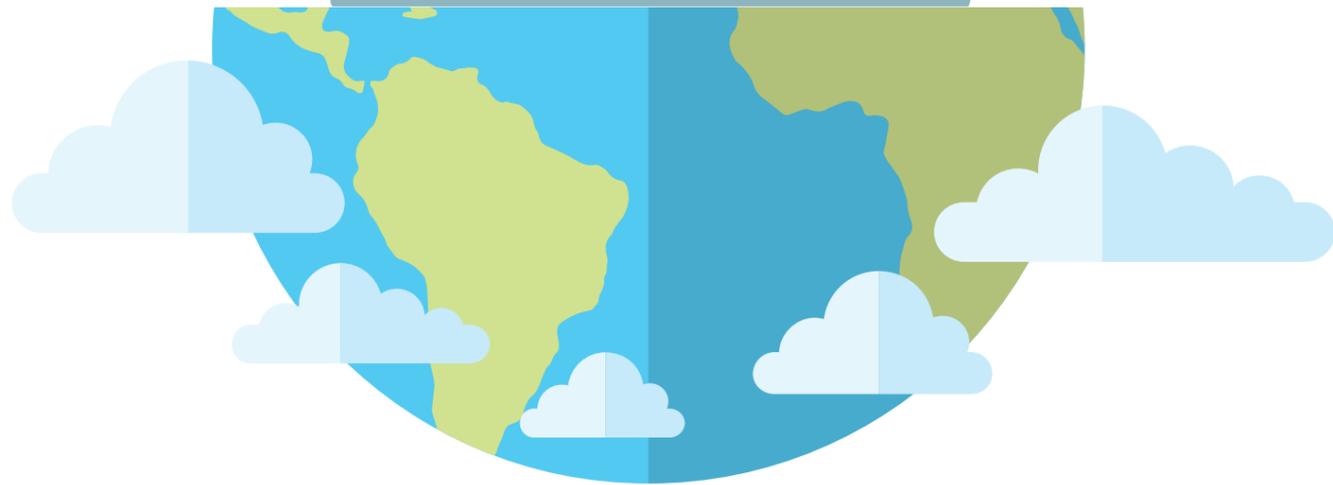


### 공익신고 방법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와 청렴신문고(1398.acrc.go.kr)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 국번 없이 110 또는 1389를 이용한 전화 상담, 우편 및 팩스, 직접 방문 신청 방법이 있다. 공익 신고자를 위한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http://www.acrc.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해요!

# 세계로 뻗어 나가는 반부패 정책



글. 제13기 국민권익 블로그기자단

##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알아보까요?



안녕하세요! 제13기 국민권익 블로그기자단 박현선입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청렴의 대표 인물이기도 한 다산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것은 왜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이다.” 그의 말처럼 공직사회의 부패는 나라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고, 한 번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견잡을 수 없이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합니다. 미국의 앨 고어 전 부통령도 “어떠한 부패도 공무원들의 부패만큼 파괴적인 것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공직사회의 부패는 우리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 업무 중 하나는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싱가포르, 영국, 미국의 반부패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알아보까요?



### 싱가포르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된 싱가포르는 온갖 부정부패로 어지러운 나라였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의 초대총리를 역임했던 리관유 총리는 싱가포르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해외기업들과 자유로운 무역이 이뤄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리관유 총리는 탐오조사국(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지금과 유사한 반부패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1. 뇌물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처벌
2. 해외에서 부정을 저질러도 범죄 성립
3. 내부고발자의 신분은 완벽하게 보장

이렇게 '부정부패 저리가!'를 외치던 싱가포르는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 영국

2010년, 영국은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을 제정하여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뇌물제공과 부패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많은 나라의 반부패법 중 가장 강력한데요. 뇌물 공여와 수수를 모두 제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년 징역 또는 상한선 없는 벌금, 재산 몰수와 고위 직책의 박탈까지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한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죠.



### 미국

미국은 1977년부터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부패방지법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법률인데요. 2008년 이후부터는 실제 처벌 건수와 액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수사영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며,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view



탐오조사국

CPIB :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뇌물방지법

UK Bribery Act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 부정청탁의 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 부정부패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부패,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의 유형은 총 14가지입니다.

### ● 법령 위반+지위·권한 남용

1.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한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청탁금지법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부정부패가 일어난다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처 : 청탁금지법 교육자료(1)

### ● 우리나라 PERC 부패지수의 변동 추이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연도	2009	2010	2011	2013	2013	2014	2015	2016
점수	4.97	4.88	5.90	6.90	6.98	7.05	6.28	6.17
순위/전체 대상국	7/16	6/16	9/16	11/16	10/17	9/16	9/16	8/16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and Economical Risk Consultancy)에서 조사한 2016년 아시아 부패지수입니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아시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지고, 지금보다 더 깨끗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을

## 배우고 싶다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볼까요?



### 한국-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확대한다

2016년 5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2006년에 체결했던 MOU를 연장하고 부패방지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제도가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활발한 협력활동을 추진해 온 결과,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도입했습니다.

### 한국 반부패 정책, 아프리카대륙에까지 전수된다



또한 올해 3월에는 국민권익위가 아프리카 튀니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했습니다. 튀니지에도 부패방지위원회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배우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데요. 튀니지 정부에 우리나라의 정책을 알리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부패 정책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신고자 보호제도 등 많은 제도를 알렸습니다.

### 대한민국 반부패 정책 배우러 왔어요



국민권익위는 외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 과정을 지난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운영했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반부패 관계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해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 제5차 연수에는 24개국 58명의 지원자 중 우크라이나, 튀니지, 인도네시아 등 14개국에서 각 1명씩 총 1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효과적인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계된 이번 교육과정은 반부패 전략 수립과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 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제13기 국민권익 블로그기자단 조선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베트남 정부가 현지 환경에 맞게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하도록 지원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부패방지 시책평가란?** 공공기관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활동과 그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 도입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그 결과, 지난해부터 베트남 검찰원은 63개 지방 검찰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또한, 지

난 3월 16일 한국-베트남-UNDP 공동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이 개최되어 지난해 시범 시행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발라즈 호르바트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에 의하면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되었으며, 한국과의 반부패 협력사업이 UNDP 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베트남-UNDP의 삼각협력이 만들어낸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술지원 사업의 성공은 다른 국가에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반부패·청렴이라는 바람직한 문화를 선도하는 국민권익위가 자랑스럽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뤄낼지 기대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국민권익위와 발 빠르게 그 소식을 전하는 블로그기자단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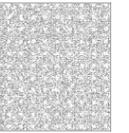


1코노미 시대에서 개인들은 무언가를 소유하기 보다는 공유와 경험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유경제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숙박공유 서비스와 차량공유 서비스들이 대거 성장했다. 대한민국도 이제 자신을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는 1코노미 시대가 본격 도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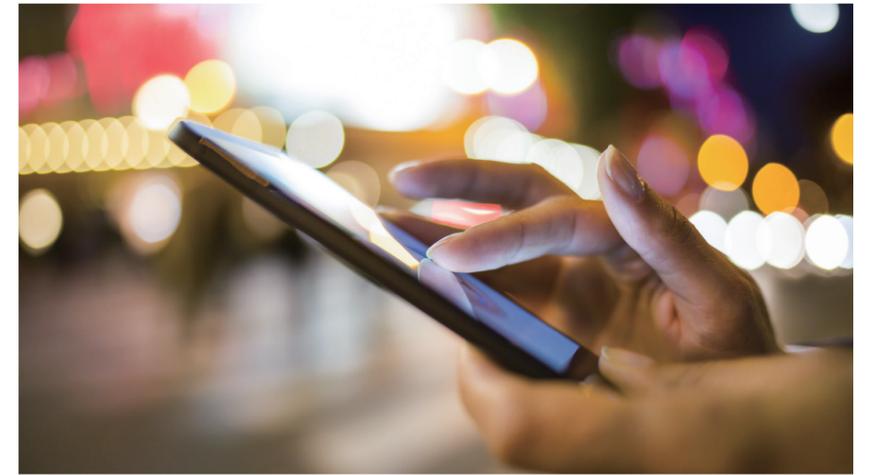
## 1CONOMY, Time commerce

# 나홀로족 급증, 1코노미 시대와 타임커머스

글 안병익 직신 주식회사 대표(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 내 인생은 한번 뿐이니까

1인가구의 증가로 혼밥, 혼술, 혼행(혼자 여행), 혼영(혼자 영화 보기) 등 ‘혼자’ 즐기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1코노미(1conomy)’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1코노미는 1인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자신을 위해 소비를 하고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경제를 의미한다. 1코노미는 자신의 인생을 즐기려는 올로라이프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올로는 미국 가수 드레이크의 노래 가사 “인생은 한번 뿐이지 올로(You only live once YOLO)”에서 유래 했다. 올로는 한번 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즐기며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래를 위한 저축 보다는 오늘의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는 것이 올로적 소비 형태이다. 요즘 젊은 층을 픽미세대 (pick-me generation)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픽미세대는 ‘나를 뽑아줘’ 세대로, 경쟁을 통해서 뽑혀야 살아남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유래했다.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선택 받고 싶은 욕망을 내포하며 살아가는 세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픽미세대는 결국 1인 가구로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시장의 새로운 파워 소비자로 떠올라 ‘1코노미’ 시대를 열어 갈 것이다.

### 1코노미 시대의 소비 방식

‘혼밥러(혼자 밥을 먹는 사람)’, ‘혼술러(혼자 술을 먹는 사람)’는 이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약 520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27%에 해당한다. 또한 2인 가구 비율도 26%로 1~2인 가구

를 합치면 전체의 약 53%나 차지한다. 앞으로 1인 가구의 소비 금액은 민간 소비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산업연구원은 1인 가구 소비지출 규모가 2015년 86조 원에서 2020년에는 12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코노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타임커머스(time commerce) 앱’이다. 타임커머스 앱은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항공권이나 호텔상품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현재 다양한 종류의 타임커머스 앱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과 소셜커머스들도 타임커머스 상품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활용분야는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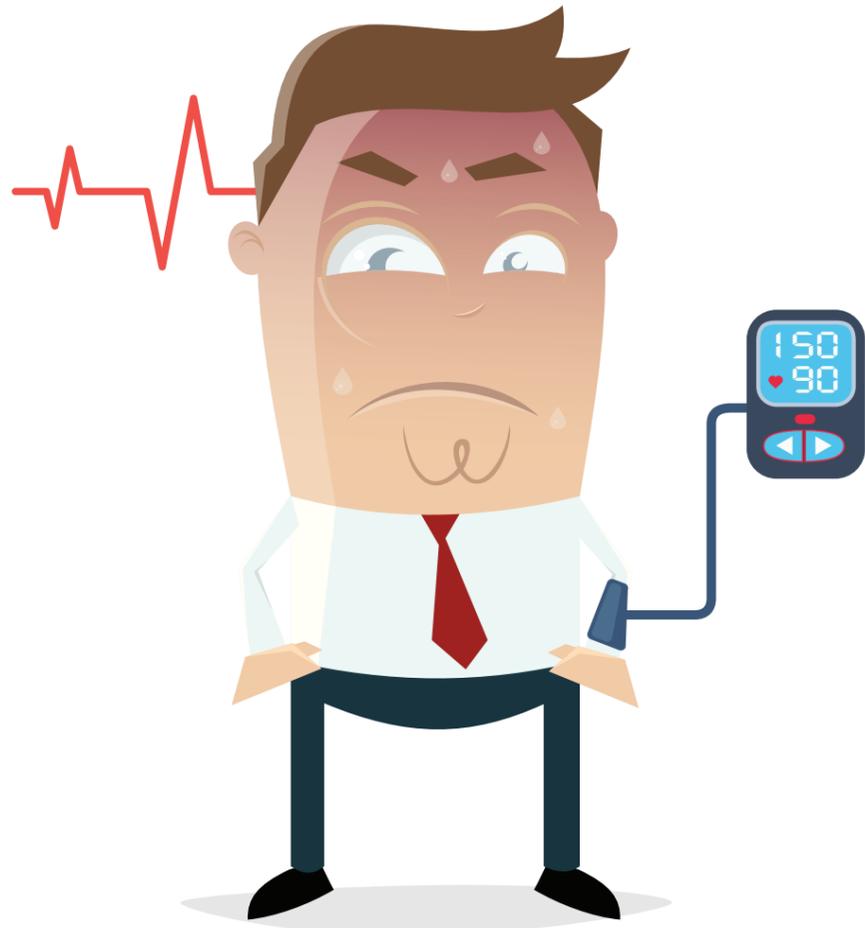
###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는 플랫폼

‘혼밥러’가 늘면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것보다 맛집 배달 앱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음식점까지 오가는 수고로움 대신 간편하게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려는 경향이 커지면서 새로운 외식 배달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맛집 배달 앱은 일종의 공간 혁명이다. 소비자는 공간을 뛰어넘어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고 맛집은 공간의 제약을 해소하면서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맛집 배달은 1인 가구의 증가와 현대인의 바쁜 생활 패턴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한 신종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맛집 배달 서비스는 시대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새로운 ‘혼밥’ 시대가 배달 수요 증가를 이끌었으며, 외식업체들도 비싼 임대료를 내가며 매장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는 편이 더 실속 있고 매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고혈압·심장질환 예방하기

두근, 두근  
설마 나도?



자료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소식 2015년 11월호 발취)



40대 중반이 제일 중요한 시기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서서히 높아진다. 많은 이들이 중장년을 지나면서 고혈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연령층은 책임이 크고 결정할 일도 많으며 시간에 쫓기는 과도한 업무와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이는 혈압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원인 중 하나다. 40대 중반은 노년층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병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므로 병의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다. 따라서 이 시기에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고혈압·심장질환 환자들을 위한 일상지침서

**아침 기상 후** : 쌀쌀한 날씨에 기상 시, 아침공기의 보온이 필요하다. 특히, 아침 배뇨 시 따뜻한 옷을 착용하자.

**목욕 시** :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절대로 탕 안에 오래 있거나 사우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가며 들어가자.

**식사 시** : 과식하거나 급하게 식사하지 말자. 식사 시 음악을 듣거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 좋다.

**식사 후 생활** : 식후 어느 정도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자. 특히 식후 바로 걷거나 움직여야 할 경우에는 과식을 피한다.

**배변 시** : 규칙적으로 배변하는 습관을 갖자. 재래식보다는 좌변기가 안전하며 화장실 공기가 너무 차지 않도록 보온을 유지해야 한다. 변비일 경우에는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물, 우유, 혹은 요구르트 등과 정제하지 않은 곡류, 해조류 등의 섭취를 권장한다.

**직장 출근 시** : 가까운 출근길은 가볍게, 천천히 걸어보자. 너무 복잡하거나 밀리는 시간을 피하고 항상 여유 있는 출근시간을 갖도록 한다. 자가 운전 시 심한 냉방을 피하자.

심혈관 질환 예방법

- ① 담배는 반드시 끊는다.
- ② 20대부터 정기적으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에 대한 조기 검진을 받는다.
- ③ 만약 진단되면 일정 수치(혈압 140/90mmHg,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130mg/dL, 당화혈색소 7.0) 이하로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 ④ 절주(하루 2잔 이하)와 저염식을 하면서 식사량을 줄인다.

특히 심장 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을 비롯하여 복부 비만,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해서는 안 된다. 흡연과 음주를 절제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이 필수다. 운동이나 명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수십 년간 익숙해져있던 일상을 중장년의 나이에 갑자기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시기의 생활 습관이 노년기 이후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 여유를 가지고 직장 일에 임하자. 직장의 스트레스로 흡연하는 일을 피하고, 심호흡과 녹차, 음료 등을 마심으로써 여유를 갖는다. 커피나 홍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절제해서 마시도록 한다.

**집에서** : 귀가 시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다. 저녁시간을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하며 지내도록 한다. 긴장되는 TV프로나 대화는 피하자.

**운동 시** : 식사 후 30분~1시간 정도 선 후,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보다는 가볍게, 또는 약간 빠르게 걷는 운동을 권장한다. 한꺼번에 많은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긴장되는 운동이나 경쟁하는 단체 운동은 피하고,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을 자제하자. 운동 시의 기후를 고려하여 운동복을 착용한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운동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잠자리 시** : 쾌적한 취침을 위하여, 적절한 실내온도, 조용한 환경, 적절한 침구 등을 마련하자. 규칙적인 시간에 취침하도록 하고, 잠들기 전 가벼운 산책을 통해 숙면을 취하도록 한다.

- ⑤ 주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
- ⑥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인 경우나 경동맥 초음파 등의 검사를 통해 혈관에 동맥 경화가 발견되는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아스피린 복용을 고려한다.
- ⑦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반의 파열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심신 상태를 잘 관리한다.

# 나의 청렴함을 모두에게 알려라!

## 전남 고흥에서

## 경남 통영까지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의 탄신일이다. 세 번의 파직과 두 번의 백의종군이라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조국애과 뛰어난 전략으로 왜적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낸 이순신. 그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힌다. 다가오는 여름, 시골벽적인 휴가도 좋지만 아름다운 '고흥' 혹은 바다의 땅 '통영'에서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은 어떨까.



# 고흥

## 이순신, 그 역사의 시작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전라남도 고흥은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 수군과 인연을 맺은 곳이다. 1580년,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에 수군만호로 부임한 이순신은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다음과 같은 청렴한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직속상관인 전라좌수사 성박이 이순신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왔다.

**이순신** “좌수사께서 무슨 일로 자네를 보내셨는가?”

**심부름꾼** “네, 이곳 발포 진영 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오라고 하십니다.”

**이순신** “오동나무를 베어오라고? 그래, 무엇에 쓰신다고 하더냐?”

**심부름꾼** “예, 오동나무로 거문고를 만든다고 합니다. 좌수사께서는 풍류를 즐기시는지라...”

이 말을 들은 이순신은 발끈했다.

‘아니, 나라가 위급한 시기에 전함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거문고를 만들어 풍류를 즐기려 하다니!’

**이순신** “좌수사께 말씀드려라.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 것이니 함부로 베어 쓸 수 없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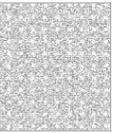
심부름꾼에게 이순신의 말을 전해들은 좌수사 성박은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그러나 당장 어찌할 수는 없었다. 나라의 물건을 사사로이 쓸 수 없다는 이순신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는 이순신의 청렴함과 강직함을 대변해준다. 비록 이 일로 18개월 만에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지만, 그의 진정한 청백리 정신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된다. 당시 이순신이 재직했던 고흥 발포만호성을 따라 올라가면 그를 기리는 충무사가 위치한다. 1976년부터 1980년까지 5년에 걸쳐 조성된 충무사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과 내삼문, 외삼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마다 충무공 탄신일인 4월 28일, 충무사에서 충무공보전위원회가 주관하여 충무공탄신제를 연다.

### | 충무사 |

-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충무사길 150 (도화면)
- 문의 061-830-5225 (고흥군 문화관광과)



또한 고흥군은 충무사 앞 오동나무터에 그의 청렴강직했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발포만호 부임 연도를 상징하는 1,580개의 바닥돌을 분양하고, 이를 포함해 6,237개의 박석으로 어우러진 청렴박석 광장을 조성했다. 위인의 소중한 일화를 단순히 흘러간 과거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여는 창이라 인식한 것이다.



충무사와 청렴박석 광장에서 이순신 장군의 높은 청렴 정신을 느꼈다면, 이제 마을을 따라 내려가 해안가로 걸어가 보자. 이곳에는 충무공의 발자취와 임진·정유난 등을 승리로 이끈 고흥 출신 수군의 숨은 인물을 테마로 한 발포역사전시체험관이 우리를 기다린다.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의 전공과 배경, 모형, 유물 등과 함께 영상 체험실이 마련되어 있다.

### 발포역사전시체험관

-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충무사길 109
- 문의 061-830-5843
- 시간 09:30~18:00 (매주 월요일 휴무/공휴일 다음날 휴관)
- 요금 고흥군민 50% 할인  
청소년 및 일반인(13세 이상)\_개인 : 1,000 / 단체 : 800  
어린이(7세 이상 ~ 12세 이하)\_개인 : 500 / 단체 : 300

# 통영

## 충무공 이순신의 땅

경상남도의 남해안 중앙에 위치한 바다의 땅 통영의 옛 이름은 이순신의 시호로 익숙한 '충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에 의하여 왜적을 물리치고 한산대첩을 올린 곳이며, 3도수군통제사가 주재하여 수군의 거점 지역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충무(忠武)란 즉 무(武)로써 나라에 충성을 바쳤다는 뜻이니 무신(武臣)으로선 대단히 영예로운 이름이다. 현재의 통영에 남아있는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찾아 역사로의 여행을 떠나보자.



### ▶ 총렬사

이순신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위패를 모시고 있는 총렬사는 1606년(선조 39) 제7대 통제사 이운룡(李雲龍)이 왕명으로 세웠다. 그 후에는 역대 수군통제사들이 매년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왔다. 총렬사는 본전(本殿)과 정문(正門), 중문(中門), 외삼문, 동서재, 경총재, 송무당, 강한루, 유물전시관 등의 건물로 이루어졌다. 경내에는 많은 비석들이 보존되어 있고, 유물전시관에는 명나라 만력제가 내린 8가지의 선물인 명조팔사품(보물 440호)과 정조가 충무공전서를 발간하고 1질을 통영 총렬사에 내리면서 직접 지어 내린 제문 등이 전시되어 있다.

### | 총렬사 |

-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여항로 251 (명정동 213번지)
- 문의 055-645-3229
- 홈페이지 www.tycr.kr
- 요금 단체 : 30인 이상  
어른\_개인 : 1,000 / 단체 : 800 (경로대상 무료)  
청소년 및 군인\_개인 : 700 / 단체 : 600  
어린이\_개인 : 500 / 단체 : 400 (7세 이하 무료)

총렬사



중앙시장

강구안 거북선 (문화마당)



통영해저터널

### ▶ 착량묘

통영 해저터널 부근 언덕에 위치한 착량묘는 이순신 장군 순국 이후 최초로 세운 사당이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지방민들이 이순신을 기리기 위해 판도가 보이는 언덕 위에 초가를 짓고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매년 음력 11월 19일 기제(忌祭)와 향사(享祀)를 모셔온 것이 사당의 시초가 되었다. 착량이란 임진왜란 때 당항포해전에서 참패한 왜적들이 쫓겨 달아나다가 미륵도와 통영반도 사이에 가늘게 이어진 지협을 파서 돌[梁]을 만들어 도망친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 지역 사투리로는 폰데라고 한다. 1974년 2월 16일 경상남도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되었고, 총렬사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다.

### | 착량묘 |

-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착량길 27(당동 8)
- 문의 055-650-4681 (통영 관광안내소)
- 시간 09:00-18:00 (연중무휴)

착량묘

통영해저터널



### ▶ 강구안 거북선

이순신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거북선이다. 통영 문화마당에서는 실제 크기로 복원한 네 척의 거북선을 볼 수 있다. 1990년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서울시의 의뢰로 22억을 들여 제작했으며 분단 이후 굳게 닫혀 있던 한강하류(비무장지대)의 빗장을 풀고, 2005년 11월 16일 한강시민공원에 정박해 있던 거북선을 한산대첩 전승지인 통영시로 옮겨 전시하게 되었다.

### ▶ 이순신 공원(구, 한산대첩기념공원)

통영의 대표적인 성지로, 1592년 8월 14일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이 해상주도권을 다툰 해전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대파함으로써 해상주도권을 장악하여 식량보급로를 확보하고 수륙병진작전을 전개하려던 일본 수군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든 임란의 최대승첩지다. 이순신공원은 성웅 이순신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거룩한 호국의 열과 높은 뜻을 선양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곳이다. 이순신 장군 동상, 전망데크, 산책로, 전통박물관, 정자(학익정), 잔디광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 | 거북선 |

-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서문로 21 (문화동)
- 문의 055-650-3956 (통영시 문화예술과) 055-650-4681 (통영관광안내소)
- 홈페이지 http://www.utour.go.kr
- 시간 09:00~18:00 (연중무휴)
- 요금 어른\_개인 : 1,500 / 단체 : 1,000  
청소년\_개인 : 1,000 / 단체 : 700  
어린이\_개인 : 500 / 단체

이순신 공원



### | 이순신공원 |

-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멘데해안길 205 (정량동)
- 문의 055-650-6560 (통영시 공원녹지과) 055-642-4737 (관리사무실)
- 시간 24시간 (연중무휴)
- 요금 무료

### 통영의 맛 ?!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다. 위대한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허기가 지기 마련, 문화마당 근처 중앙시장에서 '충무김밥'과 '꿀빵'으로 배를 채워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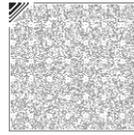
#### 벧사람의 든든한 도시락 충무김밥

충무김밥의 유래는 이렇다. 해방 이후 남해안의 충무(현 통영)항에서 고기잡이를 나가는 남편이 식사를 거르고 술로 끼니를 대신하는 모습을 본 아내가 김밥을 만들어준 것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김밥은 따뜻한 남쪽의 날씨에 금방 쉬어버려 못 먹게 되는 일이 많아 밥과 속을 따로 담아주었는데 그 후에 다른 어부들의 점심이나 간식도 현재의 충무김밥처럼 밥과 반찬을 따로 먹었다는 데에서 유래한 향토 음식이다.

#### 달달한 간식으로 딱 통영 꿀빵

밀가루 반죽에 팔소를 넣어 튀긴 뒤 겉면에 물엿과 통깨를 바른 빵으로 통영의 특산품이다. 한국전쟁 직후 통영 지역의 여러 제과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따뜻한 기후에도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하여 먹을 수 있어 바닷가에서 일하는 어부와 조선업 노동자들의 간식으로 사랑받아왔다. 꿀빵에는 진짜 꿀이 들어가지는 않으나, 표면에 바르는 물엿과 팔소의 맛이 달콤하여 꿀-맛이라는 뜻의 꿀빵으로 이름 지어졌다.





독자의 소리

지난 <봄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청렴홍보대사인 양궁선수 장혜진씨와 펜싱선수 박상영씨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문답 형식으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도 빠르고 더욱 친근하게 느꼈습니다.

선고은(서울 중랑구)

민원정보분석과 탐방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 잘 모르던 부서 탐방을 통해 업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한층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포춘쿠키의 글귀를 읽으며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박수빈(경남 통영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여러 말이 많았었는데, 시행 후 현재의 모습을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법의 영향으로 세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점점 제대로 된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정진호(제주 서귀포시)

'고충민원' 관련 기사와 '건강 100세' 칼럼이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국민권익>을 보면 삶의 지혜가 쌓이는 것 같아 좋고, 보통 사보와 달리 시간이 흐른 뒤에도 다시 펴보는 책이에요. 1년에 네 번밖에 발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울 정도입니다.

이인재(강원 원주시)

국민들의 고충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이동신문고' 활동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특히 이동신문고의 현장 해결률이 40%를 넘는다는 통계 수치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현장 속에서 문제와 답을 찾는 국민 밀착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현정(인천 남동구)



권익위 열독왕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QUIZ.

아시아 지역 내 옴부즈만 제도의 확산을 위해 1996년 창립된 ○○○○○○○○ ○○ 혹은 ○○○에는 현재 21개국 35개 기관이 가입·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평창 알펜시아에서 제15차 총회 및 제20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힌트 : 4~7p 이슈돋보기)

지번호 정답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정답자	왕채연(전남 여수시) 장희선(대구 북구) 정화인(서울 금천구)	이형준(경기 군포시) 김아름(부산 서구)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각 다섯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청렴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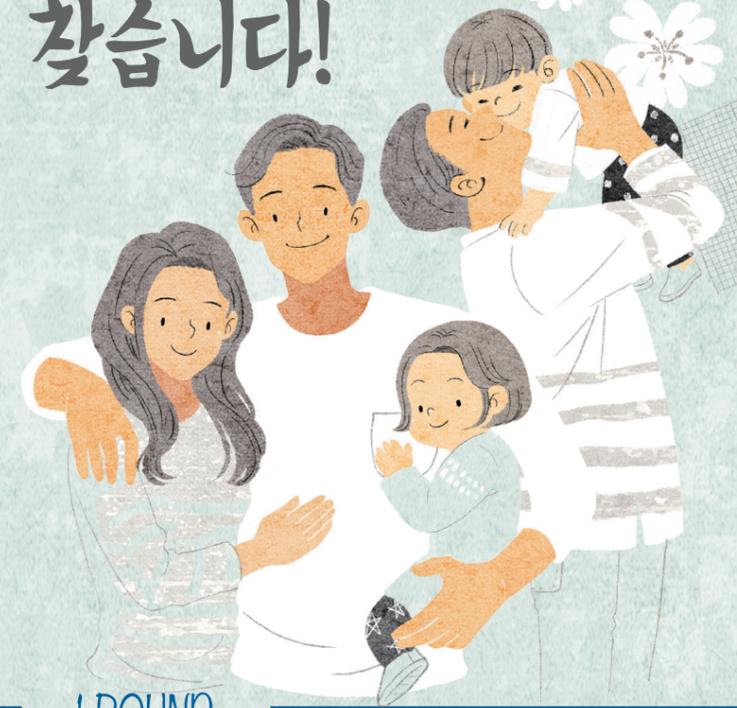
#청탁금지법이 바꾼 내 삶의 이야기

#생활 속 청렴이야기

#양심을 지킨 이야기

#양심과 청렴을 지키지 못해  
곤란했던 경험담

#청탁금지법 좋아요



I ROUND

## 2017 반부패·청렴 사연(수기) 공모전

공모명

반부패·청렴 사연(수기) 공모

주제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된 삶의 이야기
-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 및 양심 관련 사연

응모부문 및 자격

총 2개 부문 해당자격별로 참가

일반부문	공직부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자 제외) 만 19세 이상 성인	행정, 입법, 사법부 소속 현직공무원	「공직자윤리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현직 임직원

응모기간

2017. 05. 30(화) ~ 2017. 07. 24(월)

응모방법

공모전 홈페이지([www.integritycontents.kr](http://www.integritycontents.kr))에서 응모 (참가신청서와 작성하신 사연수기원고를 zip으로 압축하여 업로드)

원고규격

산문형식, 워드프로세서 작성

- 편집용지 : A4 용지(여백 줄계, 4페이지 이내, 글자 수(5,000자 이내))
- 글자모양 : 휴먼명조, 13포인트
- 용지여백 : 상·하 20, 좌·우 20, 머리말·꼬리말 15 문단모양 : 줄 간격(160%)
- \* 내용구성상 필요시 이미지 삽입 가능하며 원고규격 미준수시 탈락 처리

시상내역

총 23편(상금 880만원)

구분	시상 수	시상내역	비고
대상	1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최우수상	2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부문별 1편
우수상	4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부문별 2편
장려상	6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부문별 3편
입선	10편	문화상품권 10만원	부문별 5편
합계	23편	상금 880만원	

\* 상종 및 시상 내역은 청렴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상자발표

2017. 08. 16(수)

\* 공모전 홈페이지([www.integritycontents.kr](http://www.integritycontents.kr))에서 지난해 당선작 확인 가능

\* 시상식은 12월 초 개최 예정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국민권익

2017 SUMMER Vol.53

받는 사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담당자 앞



국민  
권익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국민권익>!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더 귀 기울여 들겠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

---

---

---

---

---

---

2. <국민권익> 여름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

---

---

---

3. <국민권익>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

---

---

---

---

---

---

---

## 2017년 여름호

권익위 열독왕 QUIZ 정답 : ●●●●●●●●●● 혹은 ●●●●

<국민권익>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 국민권익소식지 혹은 정책홍보 - 국민권익소식지